대전· 충남지역 주민들과 대화

시대는 수평적 권력과 자율과 창의로 움직이는 사회로 변화

진보도, 보수도 이미 과거의 것으로 넘어갑니다. 제3의 길은 이미 진보도, 보수도 아닌 합리적 실용주의로 갑니다. 권위주의 시대에서 민주주의 시대로, 피라미드에서 네트워크 사회로 변화합니다.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지도력이 쇠퇴하고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지도력, 명령이 아닌 자율과 창의로 움직이는 사회입니다. 그런 시대를 대표하고 이끌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정권을 잡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 같은 새로운 흐름을 모색하는 사람과 거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주제 중의 하나가 지방분권으로, 지역자치에 나서자는 사람과 중앙정부 통제, 국회 통제에 지방 자율권을 묶어 두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처럼 이념이 아니고 '자율과 분권' '대화와 타협'을 추진하는 것이 진보이고 옛날식으로 패권, 보수주의, 밀실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그런 시대에 미련을 갖고 자꾸 매달리는 사람들이 보수·수구가 아닙니까. 앞으로 정치학자들이 희망하는 대로 새 정치구도가 만들어지면 좌파·우파가 아니고 피라미드냐, 네트워크냐에 따라 정치질서가 재편될 것으로 예견합니다. 믿음을 가져주십시오. 시대가 바뀌면 융성하는 지역도 이동합니다. 앞으로 수십년간은 충청도가 각광 받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